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09년 상반기, 갑상샘암 진료인원 큰 폭으로 증가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‘2009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의 총진료비(비급여 제외, 보험자부담+본인부담)는 입원진료비, 외래진료비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1.5% 상승한 19조 1,108억원을 기록함.
 - 입원진료비는 6조 9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.0% 증가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, 외래진료비와 약국비용이 각각 7조 8,198억원(10.2%), 5조 1,996억원(8.6%)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.
- 2009년 상반기 암상병의 입원 진료인원 수는 185,05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.2% 증가하였으며, 이에 따라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 부담을 합한 진료비도 19.8% 늘어난 9,974억원을 시현함.
 - 진료인원 기준으로 본 10대 암의 다발생 순위는 지난해 상반기 위암-간암-폐암-갑상샘암에서 올해는 위암-간암-갑상샘암-폐암의 순으로 변경됨.
 - 특히 갑상샘암의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265억원에서 올해 372억원으로 40.2% 증가했고, 진료인원도 15,233명에서 20,451명으로 34.3% 증가함.
-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샘암은 주로 여성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발상하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.
 - 갑상샘암은 자체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 가능성이 97% 정도로 치사율이 낮은 암인데다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어 최근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임.
- 그 외 연령별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 5조 8,5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.1%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0~9세의 연령이 전년동기대비 2.9% 상승한 1조 5,647억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.

(09년 상반기 진료비 전년 동기대비 11.5% 증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, 9/2)